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6차시 : 실력양성운동	학번	
	임종일 T		이름	

★1920's 민족주의 계층의 움직임 : 실력 양성운동 (≒ 애국 계몽운동) : ◎

#물산장려운동

- 1920, (①)이 철폐 → 한국인의 회사설립 활발
(ex, 경성방직주식회사, 평양 메리야스 공장, 삼남은행)
- but, 한국인 기업은 자본과 기술에서 일본기업에 밀림.
- 1923,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관세 폐지
→ 민족산업과 자본을 보호, 육성하여 경제의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운동 전개
- (②) 등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은
1920년, (③)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발족. 국산품 애용운동 펼침
- 청년단체, 여성단체도 적극 참여
- but, 한국인 기업의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상품가격 상승
- (④)들은 물산장려운동을
- (⑤)의 이익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

조선 물산 장려회 취지서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의 제1조건을 장악하지 아니 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산 계급의 이기적 운동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 장려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네는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 계급이다. 실상 저들 자본가, 중산 계급이 외래의 자본주의적 침략에 위협을 당하고 착취되고 있는 경제적 정복 관계의 엄연한 사실이 저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라는 미사여구로써 동족 안에 있는 착취, 피착취의 상반하는 양극단의 계급적 의식을 은폐해 버리고, 일면으로는 '애국적'이라는 의미에서 외화 배척을 말하는 것이며, 이리하여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하는 감상적 미사여구로써 눈물을 흘리며 저들과 이해가 전혀 상반한 노동 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 "동아일보", 1923. 3. 20. -

#민립대학 설립운동 "한 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 일제는 한국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거의 주지 않음
- (⑥)들은 조선총독부에 대학의 설립을 요구
but,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교육분야의 실력양성운동으로 대학을 설립해 고등 교육을 실현하자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추진
- 1922, (⑦)를 중심으로 서울에 민립대학 기성회가 조직
"한 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구호 아래 운동을 펼침
- 일제의 방해, 1924~1925에 가뭄, 수해로 인해 모금운동이 어려워짐.
- 일본은 한국인의 자발적인 대학설립운동을 무마하기위해
1924, (⑧)을 설립

#문맹퇴치운동

- 문자를 보급하여 민중을 계몽하고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문맹퇴치운동
- 각지에 야학이 설립
- 한글 보급 강습회 개최
- 조선일보, 1929,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 (⑨)전개
- 1930년대, 동아일보 "배우자, 가르치자, 다함께 브나로드"
- (⑩)전개
- 일본, 이들 운동이 민족주의 색채를 띠자 1935년부터 전면 금지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다양화"

- 민족주의 계열 :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문자보급운동
- 사회주의 계열
- 학생운동
- 여성운동
- 특별 계층 - 백정
- 좌우합작 움직임

민립 대학 설립 운동

근래 일반의 교육열이 매우 높아감에 따라 여러 가지 학교가 모두 부족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년의 곤란이 진실로 비상하지만 그중에도 조선 안에는 한 개의 대학교도 설립되지 않아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인도할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이번 에 조선 전도의 다수의 유지를 망라하여 민중 운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민립 대학 한 곳을 세워 보고자 한다.

- "동아일보", 1922. 11. 30. -